

치 사

천 년 전, 대각국사 의천스님께서서는 교장(敎藏)을 펴내며,
“대장경을 조성하는 것은 천 년의 지혜를 모아
천년의 미래로 보내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2011년은 바로 그 천년, 의천스님이 말씀하신 대장경 조성한 지 천 년이 되는 해입니다. 2천5백 여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대정각을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부처님께 들은 그대로를 말씀으로, 나뭇잎에 적어서, 종이에 써내려가고, 나무에 새기고, 금속활자로 인쇄해 펴내면서 천년의 미래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대 물질문명의 총아인 전자경전으로 담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시 천년의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연말을 기해 <불교언론문화상>을 시상하는 뜻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라디오와 TV의 전파를 타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조들의 원력이 빚어낸 다양한 문화가 시방의 못 중생들에게 널리 전해지게 하는 일에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993년 대한불교신문사와 함께 처음으로 이 상을 제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계 가장 권위있는 언론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력해온 사단법인 보리의 김재일 이사장님의 헌신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5월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지만 생전의 공적이 여운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으니 고인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각 방송언론 매체에서 많은 불교 관련 작품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수상 유무를 떠나 작품 하나하나마다 담긴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고민, 그리고 각별한 수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참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듭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천년 전 대장경을 판각한 환희로운 손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분들께는 각별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성찰에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과 국민들은 감동받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마음으로, 바른 관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더욱 빛내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불교신문사 사장 수불스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임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정성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12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